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② 03. ④ 04. ② 05. ③ 06. ③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⑤ 12. ④ 13. ① 14. ① 15. ③ 16. ③ 17. ① 18. ⑤ 19. ⑤ 20. ⑤

1. 석가모니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의 삼독(三毒)에 빠져 고통받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삼독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석가모니에 따르면 모든 사물과 현상은 연기(緣起)의 원리에 따라 서로 의존적 관계 속에 있다.
- ③ 석가모니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인연(因緣)에 따른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존재이므로 불변의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석가모니에 따르면 인간은 마음, 입, 몸으로 짓는 업(業)으로 인해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
- ⑤ 석가모니에 따르면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근원적 무지인 무명(無明)은 고통의 원인이다.

2. 민주주의에 대한 하버마스와 슐페터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심의 민주주의를 주장한 하버마스이고, 을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한 슐페터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은 다른 참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ㄱ). 슐페터는 민주주의가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정치가의 지배라고 보았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하버마스는 공적 심의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지만 모든 정책 결정의 과정에 시민이 모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ㄹ. 하버마스와 슐페터는 시민이 항상 합리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3.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사르트르이고,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주체적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ㄴ).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실존적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사르트르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이 실존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키르

---

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 오직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으며,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ㄷ. 키르케고르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절망을 완전히 극복하고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4. 맹자와 순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맹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났으므로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길러야[存心養性] 한다고 보았지만, 순자는 인간이 악한 본성을 타고났으므로 도덕 인식 능력과 실천 능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맹자와 순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와 순자는 모두 군자의 소인의 타고난 본성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③ 맹자는 긍정, 순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는 하늘을 도덕의 근원으로 보고 하늘의 명령(天命)에 따라 인의의 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순자는 하늘을 도덕의 근원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보았다.
- ④ 맹자와 순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와 순자는 모두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맹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5.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행복이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 ④ 아퀴나스는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

#### 6. 노자와 장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이고, 을은 장자이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노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노자는 경(敬)의 실천을 주장하지 않았다. 경은 유교에서 제시하는 수양론이다.
- ④ 장자는 백성이 많고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라 인위적인 그 무엇도 없는 곳[無何有之鄉]을 이상향으로 추구하였다.
- ⑤ 노자와 장자는 모두 예법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

### 7. 데카르트, 베이컨, 프로타고라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데카르트이고, 을은 베이컨이며, 병은 프로타고라스이다. 데카르트와 베이컨은 모두 진리를 탐구할 때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철학의 제1 원리를 도출하였다.
- ② 베이컨은 인간에게 유용한 자연 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보았다.
- ③ 프로타고라스는 자연을 탐구 대상으로 삼은 자연 철학자들과는 달리 인간 삶과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 ⑤ 프로타고라스는 객관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인이 진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 8. 플라톤과 롤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롤스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지 않았다.
- ③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롤스는 정의의 원칙 중 제2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플라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국가 구성원의 사회적 직분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9. 왕수인과 주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왕수인이고, 을은 주희이다. 주희는 도덕적 앎과 실천이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相須(상수)]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왕수인은 이치가 마음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②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 사물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주희이다.
- ④ 주희의 치지에 대한 입장이 아니다. 치지가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

⑤ 주희의 격물에 대한 입장이 아니다. 격물이 의념이 머무는 곳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 10. 이황과 이이의 이기론과 사단칠정론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므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반면에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그것에 이가 타는 것이므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동일하다고 보았다(ㄷ). 이황은 사단(四端) 중 하나인 시비지심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이는 시비지심이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라고 보았다(ㄹ). **정답 ⑤**

#### [오답피하기]

ㄱ. 이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는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理)라고 보았다.

ㄴ. 이황과 이이는 모두 사단은 순선한 도덕 감정으로, 칠정은 선악의 가능성을 지닌 일반 감정으로 보았다.

#### 11. 에픽테토스와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고,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자연을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면서 자연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ㄴ). 에픽테토스와 스피노자는 모두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ㄷ). 에픽테토스와 스피노자는 모두 인간이 이성을 따르려는 노력을 통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 [오답피하기]

ㄱ. 에픽테토스는 이성에 따르는 삶, 즉 자연에 따르는 삶이자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르는 삶을 행복으로 보았다. 행복을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나오는 정신의 지적 만족이라고 본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 12.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홉스이고, 을은 로크이며, 병은 루소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이에 비해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사회 상태로 옮겨가면서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불평등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보았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법과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로크는 사회 계약을 맺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그 신

체의 노동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③ 루소와 로크는 모두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루소는 주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고 보았다.

### 13. 원효와 지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원효이고,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강조하였으며,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② 원효는 모든 종파의 이론들이 일심(一心)이라는 하나의 근원에 의해 회통(會通)되어야 한다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을 강조하였다.

③ 지눌은 단박에 진리를 깨치는 돈오(頓悟) 이후에 나쁜 습기(習氣)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면서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것을 점수의 요체로 보았다.

⑤ 원효와 지눌은 모두 무아(無我), 즉 '나'라고 주장할 만한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諸法無我]을 깨달아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4. 밀의 자유주의와 비롤리의 공화주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자유주의 사상가인 밀이고, 을은 현대 공화주의 사상가인 비롤리이다. 밀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ㄱ). 비롤리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보고,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였다(ㄴ). **정답 ①**

#### [오답피하기]

ㄷ. 비롤리는 자신이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 사랑이 애국이라고 보았다.

ㄹ. 밀과 비롤리는 모두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비롤리는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5.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이고, 을은 동학 사상가인 최시형이다. 최시형은 새로운 세상이 현세에서 실현될 것[後天開闢]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① 이항로는 성리학적 질서는 올바른 것[正]이므로 지켜야 하고, 서양의 문물과 기술은 거저된 것[邪]이므로 배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이항로는 서양과의 교역에 반대하면서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최시형은 한울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같다고 보고, 사람을 한울과 같이 공경하라고 주장하였다.

⑤ 이항로는 유교의 인륜을 강조하였지만 유, 불, 도의 통합을 주장하지 않았다. 최시형의 동학사상은 고유 사상인 경천(敬天) 사상을 바탕으로 유, 불, 도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 16.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의 본성이 있다고 보았다(ㄴ).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아 선행을 하면 자신의 공적이 되고, 악행을 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ㄹ). **정답 ③**

### [오답피하기]

ㄱ. 정약용에 따르면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사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四端)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된다.

ㄷ. 정약용에 따르면 자주지권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된 선천적인 것이다.

## 17. 평화에 대한 갈통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갈통이다. 갈통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과 같은 간접적 폭력도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보았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② 갈통은 문화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③ 갈통은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갈통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테러, 전쟁, 범죄, 폭행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⑤ 갈통에 따르면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영향을 준다.

## 18. 칸트와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칸트이고, 을은 밀이다.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ㄱ). 밀은 판단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더 바람직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ㄷ). 칸트는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도덕 법칙을, 밀은 공리의 원리를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ㄴ. 밑은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19. 흄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흄의 주장이다. 흄은 덕이 사회적 시인의 감정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인의 감정이 느껴지는 악덕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흄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고, 덕은 모든 관찰자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시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② 흄에 따르면 덕은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다.
- ③ 흄에 따르면 덕에 대한 식별과 덕의 실천 모두 감정에 의존한다.
- ④ 흄에 따르면 덕은 사물에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시인의 감정이다.

**20. 하이에크와 케인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이고, 을은 수정 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스이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기능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ㄱ). 케인스는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ㄷ).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모두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ㄴ).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ㄴ. 케인스는 시장의 조절 기능이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